

초등학교 귀국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및 국 어 교육 양상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
을 중심으로**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국어교육과) 교수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귀국 학생 대상 학교 적응 교육의 내용과 방법
- IV. 귀국 학생 대상 국어교육 양상
- V. 결론

I. 서론

일반적으로 귀국 학생이란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이나 외국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학생들을 지칭한다. 이제까지 교육부에서는 ‘2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 가운데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학생’과 같이 주로 해외 거주 기간과 귀국 이후 경과 시간을 기준으로 귀국 학생의 개념을 정의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 귀국 학생의 개념을 ‘부모의 해외 파견 동행이나 해외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다 귀국하여 교과 과정의 차이, 교과 내용 및 수준 차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별도의 집중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로 정의하되, 한국어교육이 아닌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전혀 없는 귀국 학생의 경우는 당연히 한국어교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절대 다수의 귀국 학생들은 해외 체류 기간 중에도 가정에서 한국어로 소통하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하기 듣기 중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한 데 비해서 읽기 쓰기와 같은 문식력의 부족으로 학교생활 적응 및 교과 학습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귀국 학생들의 문제는 한국어교육보다는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귀국 학생에 대한 연구는 귀국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학교 생활 적응(김미경, 1999; 권효숙, 2002; 윤미라, 2006; 손인순·최영옥·천성문, 2010; 이진주, 2011; 문경훈·임재훈, 2012; 김지영, 2013)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교육의 관점에 기반한 연구(윤희경, 2002; 원진숙·이영호, 2003), 귀국 학생 대상 교재 개발 (조미경, 2001; 고현영, 2006; 정은홍, 2007; 권준영, 2009; 원진아, 2010; 박주용, 2011)에 관한 연구,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및 한국어 교육 방안 (송영복, 2004; 이선희, 2007; 정현주, 2014)에 관한 연구 등 주로 한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이들 귀국 학생들의 문제에 접근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귀국 학생을 일반 학급에서 분리하여 교육하는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¹의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의 성격에 주목하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귀국 학생반 사례 연구를 통해 귀국 학생을 위한 초기 학교 적응 교육 및 국어 교육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이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배려하여 그 학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 교과 교육과 언어 교육을 함께 교수함으로써 일반 학급에서 수업이 가능해질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보호 교수법(Sheltered Content Instruction)(Echevarria & Graves, 2007)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귀국 학생반 한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 및 국어 수업 사례 분석에 기반한 사례 연구(case study)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은 있지만, 향후 초등학교 귀국 학생에게 적합한 초기 학교 적응 교육 및 국어교육 방법에 관한

1 현재 귀국 학생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서울의 5개교, 경기도 3개교 등 전국적으로 15개교에 불과하다. 전체 귀국 학생 가운데 8%의 학생만이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에서 교육받고 있을 뿐, 나머지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일반 학교 통합 학급에서 교육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바람직한 맞춤형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초등학교 귀국 학생 특별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생활 및 문화 적응 교육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 2)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초등학교 귀국 학생 특별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교육 양상은 어떠한가?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귀국 학생반 4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S교대 부속 초등학교는 ‘3년 이상 연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을 한국어와 수학 시험과 면접 등 소정의 평가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까닭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어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4, 5, 6학년에 각각 1개 학급씩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는 S교대 부속 초등학교는 원적학급을 일반학급으로 두고 일부 교과 시간에 특별학급으로 이동하는 방식이 아닌 원적학급을 특별학급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반 학급과의 교류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S 초등학교의 귀국 학생반은 기본적으로 일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여 운영하기는 하지만 귀국 학생반 특성에 맞게 개발된 별도의 자체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일반 정규 학급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학급은 S 초등학교 4학년 귀국 학생반으로 다양한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을 지닌 남학생 6명-김OO(9년 9개월, 미국), 정OO(7년 6개월, 미국), 권OO(3년 10개월, 중국), 이OO(4년 8개월, 영국), 송OO(5년, 이탈리아), 박OO(4년 10개월, 스페인)-과 여학생 2명-홍OO(5년 1개월, 캐나다), 이OO(6년 5개월, 홍콩)- 모두 8명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이나 홍콩에서 있다 온 학생들도 국제학교에서 수학했던 까닭에 모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다.

2. 연구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귀국 학생들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적응 교육 및 국어 교육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015년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일간 한 차례의 국어 수업 참여 관찰과 두 차례에 걸쳐 담당 교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귀국 학생반 교육과정 문서, 자체 개발한 한글 학습 및 글쓰기 교재, 학생들이 직접 돌려가면서 쓴 모둠 일기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하고 분석하면서 수시로 담당 교사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인 질의 응답 과정을 통한 삼각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1) 수업 참여 관찰

연구자는 학교 측에 사전 접촉을 통해 수업 참관에 대한 양해를 구

하고, 2년째 귀국 학생반을 맡고 있는 담당 교사에게 평소에 수업하는 방식 그대로 수업해 줄 것을 요청한 후 수업 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수업은 4학년 1학기 일반 학급에서 하는 것과 꼭 같은 교육 과정과 국어 교과서로 진행되는 7단원 ‘의견과 근거’ 2차시 수업이었다. 연구자는 담당 교사의 양해를 얻어 귀국 학생 반의 국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수업 과정을 녹화하여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수업 관찰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2) 담당 교사 심층 면담

담당 교사 심층 면담은 모두 두 차례 진행하였다. 제1차 면담(2015년 7월 24일 실시)은 국어과 수업 참여 관찰을 마치고 나서 두 시간, 제2차 면담(2015년 8월 5일)은 귀국 학생반 관련 교육 자료 및 학생들의 모둠 일기 검토 후 한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 대상자인 Y 교사는 경력 16년차 귀국 학생반 부장교사로 이전에 중국 선양의 한국 국제학교에서 2년간 한국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가지고 있어 귀국 학생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수용적 성향의 교사였다. Y 교사는 영어 교과 전공으로 별도의 KSL 교육이나 귀국 학생반 지도 교사 연수 경험은 없었으나 귀국 학생 지도에 관한 남다른 열정을 지닌 교사였다. 담당 교사 심층 면담은 참관한 국어 수업에 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은 물론 귀국 학생들의 성향, 학교 적응 양상, 귀국 학생반 운영의 주안점, 생활 지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과 방법 전반에 대해 등을 반구조화된 면담 방법을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면담 내용은 피면담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담당 교사와는 두 차례의 면담 이후에도 두 차례의 유선 통화와 이메일 문의 응답 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수집 과정을 진행하였다.

3) 관련 자료 분석

귀국 학생반 운영과 귀국 학생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당해년도 귀국 학생반 교육과정 문서인 <귀국 학생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 자체 제작한 수준별 한글 및 쓰기 교재 및 학습지 자료, S 초등학교 주제 중심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교재인 <우리 나라 우리 문화>, 조각 그림을 완성하는 창의력 쓱쓱 스케치북, 가치 사전 경필 쓰기 워크시트,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함께 쓰고 교사와 학부모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메모 글로 남기게 되어 있는 모둠 일기 자료 3권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검토 분석하였다.

Ⅲ. 귀국 학생 대상 학교 적응 교육의 내용과 방법

1. 귀국 학생의 특성

귀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가정환경 면에서 일반 학생보다 경제 수준이 높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귀국 학생들은 장기간의 타국 생활을 통해서 한국과 다른 문화를 접한 후 귀국해서 다시 이전의 친숙했던 것에 직면하여 역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다(김지영, 2013). 체재국의 언어를 한국어보다 유창하게 구사하고, 그 나라에서 체득한 문화 경험에 익숙해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새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라는 장벽에 부딪혀 의사소통은 물론 교우 관계 형성, 교과 학습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심순실(2003)은 귀국 학생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의 주요 요인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49.4%), 공부를 따라가기 어렵다(52.7%), 규칙이 너무 많고 자유롭지 못하다(38.6%)와 같이 공부와 관련된 학교 적응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문경숙, 임재훈(2012)은 외국 학교에 비해 교과목 수나 학습량의 과다함, 학습 내용

의 어려움, 지식 전달 중심의 교수 방식 차이, 규칙의 엄격함 등의 학교 적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박지희(2012)는 귀국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학교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인지적 혼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교과 학습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많은 교과목과 학습량, 어려운 학습 내용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귀국 학생들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는 S 초등학교 4학년 귀국 학생반 학생들이 쓴 모둠 일기 내용의 일부이다.

(1) 오늘 동아리 활동은 사, 오, 육학년이 다 모여서 했다. 오늘 동아리 활동의 주제는 10월달에 하는 프로젝트 만들기였다. 그 프로젝트는 자기가 살 다온 나라의 내용을 말하는 거였다. 자기 나라의 옷, 음식이 있으면 가져와야 한다. 한국어로 발표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엄청 긴장이 된다.(권OO, 2015년 4월 7일 일기)

(2) 오늘은 평범한 하루였다. 아침에는 그림을 그렸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었다. 오후 수업을 마친 후 방과후수업을 갔다. 오늘 방과후수업은 바이올린이었다. 내일은 또 논술 방과후수업을 가야 한다. 엄마가 왜 방과후를 이렇게 많이 보낼까? 아 힘들다!(김OO, 2015년 5월 12일)

(3) 오늘은 이상한 날이었다. 영어를 3번이나 하는 것이다. 첫 번째 Ms Gladys 귀국반, 두 번째 Ms Gladys 귀국반, 세 번째 Mr Titus 귀국반!! 왜 영어가 이렇게 많을까? 진짜로 이상했다. 내일은 영어가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운동 좀 하면 좋겠다. 오늘은 영어 팡팡! 날이었다.(박OO, 2015년 6월 1일)

(4) 오늘도 힘들었다. 잠도 못 잤다. 내일은 학원도 다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했다. Lex Kim이란 학원이 있는데 정말 너무 하다. 빌딩 앞에서나 화장실 앞에서 한국어로 말하면 크게 혼난다. 내가 Lex Kim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이OO, 2015년 6월 30일)

(5) 오늘은 과학 시험을 봤다.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많이 떨렸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정심줄을 안놓고 집중만 많이 했다. 9번은 몰라서 안할까 하다가 그냥 찍었다. 틀렸을까봐 고민했다. 진짜 많이 떨렸다. 휴우

우. 오늘은 집중력의 하루였다.(정OO, 2015년 7월 13일)

귀국 학생반 학생들이 쓴 모둠 일기 자료인 (1)~(5)는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두려움과 긴장감, 방과후수업과 학원 과외, 숙제에 대한 부담감, 시험 성적에 대한 압박감, 과도한 영어 공부에 대한 거부감 등 귀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6) “여기는 한국어가 기본적으로 되고 부모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라 아이들이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도 빠르고 한국 문화에 바로 노출되면서 언어적 자극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안 되었는데 정말 쑥쑥 실력이 느는 게 보여요. 하지만 아이들이 외국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각종 학원 교육에 지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대로 한국 생활에서 아이가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다른 한국 학부모님에 뒤질세라 이것저것 교육시키십니다. 또 애써 익힌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강박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강도 높은 영어 학원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한국은 자기들이 살다운 나라보다 힘들고 어렵고 ...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종종 살다 온 캐나다나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해 보면 뽁뽁한 한국 학교, 학원, 부모님들의 갑작스런 관심과 기대, 학원 순례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지역에서 있다 온 아이들의 경우 한국의 학교 적응을 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도 한국인 이기보다는 그 나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기저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학기초 소품을 가도 먹을 것을 서로 나누지 않더라고요. 귀국 학생반에서 일상을 나누고 공유하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런 점들을 고쳐가도록 신경쓰고 있어요.”(담임 Y교사, 2015년 8월 5일 면담 내용)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을 일반학급에서 분리해 교육하고 있는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 안에서 귀국 학생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한국의 학교생활과 언어에 적응해 가면서도 한국의 경쟁적인 학교 문화와 공부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귀국 학생반 아이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자신이 체류했던 나라에서 받아왔던 교육과 다른 한국의 과도한 공부에 대한 부담감, 사교육에 대한 반감, 영어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부모의 과도한 기대, 자신이 생활하던 나라에 대한 동경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을 통한 학교 생활 및 문화 적응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S 교대 부속 초등학교는 1997년부터 학교 실정과 귀국 학생들의 특성이나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귀국 학생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의 특성은 다음 <귀국 학생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운영상 유의점에서 확인된다.

(7) 운영상 유의점

-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학교·학급의 분위기를 만든다.
-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귀국 학생의 생활 체험을 소중히 여긴다.
- 귀국 학생의 부담을 덜어준다.
- 느긋하게 목표를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 가정과의 연락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형성한다.

(7)은 곧바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교과서로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귀국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일반 학급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학급인 귀국 학생반에 배치하고, 이들이 지닌 문화적 배경과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S 교대 부속 초등학교는 디딤돌 프로그램 차원에서 귀국 학생들의

조속한 적응을 위해 1학기동안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귀국 학생이 처음 한국에 돌아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첫 학기에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월별 주제를 정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 가능한 여러 교과별 내용과 국제이해교육을 융복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귀국 학생반에서 자체 개발한 <우리나라 우리 문화>라는 교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귀국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3월), ‘우리 학교와 우리 고장’(4월), ‘우리 전통 문화’(5월), ‘우리 책, 우리 생각’(6월)과 같은 내용을 월별 주제로 설정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소주제들을 주별로 관련 교과 교육 내용 및 국제이해교육을 연계하여 체험 교육까지 병행하여 1주일에 6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다음 <표 1>은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1학기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월별, 주별, 관련교과, 국제이해교육을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이다.

표 1. S교대 부속초등학교 귀국 학생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월별 대주 제	소주 제	활동 내용	관련 교과	국제이해교육
3월	태극 기와 무궁 화	태극기 그리기, 국기에 대한 예절 알기, 국기에 대한 맹세의 뜻 알기, 국기 게양법 알기, 우리나라 국화 이름 알기, 무궁화 관찰해서 그리기	국어, 도덕, 사회, 미술	살다 온 나라 국기 소개하기, 살다온 나라의 국화 소개하기
	애국 가	애국가 가사의 뜻 알기, 애국가 배워서 부르기	국어, 도덕, 음악	살다 온 나라 국가 소개하기
	우리 글 한글	한글의 우수성, 한글의 구조, 세종대왕 위인전 읽고 생각 나누기, 세종대왕 위인전 읽고 독서 감상화 그리기, 사전에서 낱말 찾는 법 배우기	국어, 사회, 미술	살다 온 나라 언어로 자기 소개하기, 자기 이름 쓰기, 그 나라 문자로 된 책 소개하기

	우리 역사	단군 이야기 읽기, 우리 나라 역사 속 인물 조사하기, 역사 현장 방문하기, 우리 건국 신화를 다른 나라의 건국 신화와 비교하기, 우리나라 역사 소개하기	국어, 사회, 도덕	살다 온 나라 건국 신화 소개하기, 역사 소개하기, 위인 소개하기
4월 우리 학교 우리 고장	우리 학교	교표, 교화, 교목, 교가, 애국조회 예절 지키기, 바르게 줄서기, 방향 전환하기, 교훈, 학급 규칙 알고 지키기, 특별실 위치와 이름 알기	도덕, 체육, 음악	살다 온 나라에서 다녔던 학교 소개하기
	서초구 돌아보기	서초구 주요 기관과 시설 알기, 서초구의 문화 유적 조사하기, 우면산 등반하기, 우리 고장 살펴보기, 우면산 등반하며 나무, 꽃 이름 알기	국어, 사회, 과학, 미술	살다 온 지역 소개하기, 살다 온 고장의 문화 유적 및 주요 기관 소개하기
	서울의 이모저모	서울의 역사, 유래, 산과 강, 생활 모습, 지하철 노선과 이용 방법	국어, 사회, 미술	살다 온 고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기, 살다 온 나라 수도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광고하기
	우리 문화재	국보와 보물의 뜻 알기, 우리 나라 대표적인 문화재 알기, 백제 문화권 문화 탐방	도덕, 국어, 창체	살다 온 나라의 생활 예절 소개하기
5월 우리 전통 문화	생활 과학 이야기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속 조상들의 지혜 알기, 향아리의 과학성 알기, 천연 염색의 아름다움	국어, 사회, 실과	조상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물건을 한 가지씩 골라 외국인에게 광고하기
	우리 명절과 전래놀이	민속 명절 이름과 날짜 알기, 민속 명절 음식 알기, 명절 날 전래놀이 알기, 강강술래 노래하고 춤추기	국어, 사회, 체육	살다 온 나라의 민속 명절 소개하기
	전통 음악	우리 나라 악기 이름과 특징, 국악기 그리기,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듣고 신체 표현하기, 사물놀이 장단 익혀 연주하기	국어,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살다 온 나라 음악 소개하기
	생활 예절	바른 인사법, 언어예절, 식사예절, 다도, 성균관 어린이 예절학교 체험학습, 외출하거나 돌아왔을 때 인사드리기	국어, 도덕, 사회, 창체	살다 온 나라의 주요 예절 소개하기

6월 우리 책, 우리 생각	우리 옛이야기	‘심청전’, ‘흥부전’, ‘콩쥐팍쥐’ 읽고 내용 알아보기, 판소리 ‘흥부가’ 듣기, 읽은 이야기 역할극으로 꾸며 발표하기, 독서감상화 그리기	국어, 미술, 음악	살다 온 나라의 전래 동화 소개하기
	아름다운 시와 노래	‘엄마야 누나야’, ‘설날’, ‘고드름’, ‘숨바꼭질’, ‘햇별은 짹짹’과 같은 노랫말의 내용과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흥내내는 말을 몸으로 표현하기	국어, 음악, 미술	살다 온 나라의 시나 노래 소개하기
	우리나라 의식주	우리나라 음식 이름과 특징, 식사예절, 숟가락 젓가락 바르게 사용하기, 우리나라 음식 만들어 먹기, 전통 의상의 종류와 이름 알기, 한복 입어보고 한복 선의 아름다움 알기, 한복 입었을 때의 예절 알기	국어, 사회, 도덕, 실과	살다 온 나라 민속 의상 소개하기, 살다 온 나라 대표적인 음식 소개하기 potluck party
	우리 문화재	국보와 보물의 뜻 알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화재 알기, 박물관 견학하며 조사하기, 문화재 방문 시 예절 알기, 국립중앙어린이 박물관 체험 학습	국어, 사회, 창체	살다 온 나라의 주요 문화재 소개하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학문적인 맥락 안에서 문화와 교과 내용, 지역 사회 및 국제 이해 교육까지 통합해서 가르치면서 다양한 층위의 교육 경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귀국 학생들의 언어, 문화, 생활, 교과 적응 차원에서 당장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상위 주제(Big idea)로 설정하고, 이 주제를 여러 교과의 관련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통합 조직자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다 흥미롭고 깊이있는 학습 경험을 유도하고 있다. 보호 프로그램 차원에서 귀국 학생에게 제공되는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언어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실제적이면서도 유의미한 맥락 안에서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언어와 교과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내용 중심 보호 교수법(Sheltered Content-Based Instruction)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학습자들은 사실 상당량의 언어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유의미한 언어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모든 지식의 구성 과정이 근본적으로 맥락 의존적이며 총체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범교과 차원의 융복합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 학교생활, 우리 고장, 생활 과학, 생활 예절 등 귀국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회, 실과, 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가르친다. 상위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 영역들을 통합·연결하여 유의미한 활동을 통해 접근하는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제한된 수준의 언어 능력밖에 없는 귀국 학생들에게 유의미하면서도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크다.

셋째, 국제 이해교육까지 아우르고 있는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귀국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긍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를 교실 활동 차원에서 활용하는 상호문화적 접근법을 통해 학습 동기를 촉발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고 있다. 이렇게 귀국 학생들이 경험으로 익힌 친숙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문화적 접근법은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당당한 수업의 주체로 서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IV. 귀국 학생 대상 국어 교육 양상

1. 수준별 기초 문식성 교육

S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귀국 학생반에서는 국어를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어 학년을 통합해서 가르치는 수준별 국어 2시간, 학년별 국어 교과서로 가르치는 국어 3시간 이렇게 이원화된 방식으로 한 주에 총 5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고 있다. 수준별 국어 시간에는 자체 제작한 수준별 한글 및 쓰기 교재, 학습지 자료, 그리고 일반 시중 출판사에서 나온 입문기 한글 교재인 <기타 국어>나 <어린이 훈민정음> 등을 활용하여 귀국 학생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초 문식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저희는 한국어교육 스타일로 국어를 가르치지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어차피 1년 정도 있다가 일반 학급에 올라가서 국어를 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예 여기서 국어 교육 스타일로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듣기 말하기는 다들 어느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귀국 학생반이긴 하지만 기본 교육과정은 4학년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4학년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평가하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일반 반 아이들하고 같이 시험보고 결과물을 나이스에 입력해야 하니까 사실 아이들 수준에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이원화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4학년 국어 교과서와 한글 교재의 간극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귀국반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투입해서 이 간극을 메워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 교재는 읽기 지문이 일반 국어 교과서에 비해서 학생들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담임 Y교사, 2015년 8월 5일 면담 내용)

일반 국어 교과서로 하는 국어 수업 3시간과는 별도로 귀국 학생 한 국어 수준별로 실시하는 기초 문식성 교육은 (9)와 같은 방식으로 기초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장 쓰거나 짧은 분량의 지문을 읽고 알게 된 내용을 찾아 써 보기와 같이 읽기·쓰기 중심

의 문식성(literacy)교육에 집중한다. 귀국 학생반의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가 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귀국 학생들로 하여금 1년 안에 일반 학급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식력을 길러주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9) 어순에 맞게 낱말들을 조합해서 뜻이 통하도록 문장을 만들어 보라.

(예) 예쁜, 받았습시다, 가방을

→ _____

· 다음과 같은 짜임새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

(예) 동생이 회장이 되었다.

(무엇이) + (무엇이) + (되었다)

· 이어주는 말에 어울리게 두 문장을 이어서 써 봅시다.

개학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_____.

나는 피구를 좋아한다, 그러나 _____.

한글 자모, 글자와 낱말의 짜임과 같은 한글 파닉스(Phonics)로부터 끝말 이어가기, 문장에 맞는 조사 쓰기, 흥내내는 말, 짧은 글쓰기, 이어지는 말, 국어사전 찾는 법, 원고지에 옮겨 쓰기, 내가 쓴 글을 컴퓨터로 옮겨 쓰기, 글을 읽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 쓰기, 문장에서 가리키는 내용 찾아 쓰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찾아 쓰기,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 알아보기, 글을 읽고 알게 된 사실 찾아 쓰기, 글을 읽고 중심 내용 간추리기 등의 교육 내용을 수준별로 위계화하여 지도하고 있다. S교대 부초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 쓰기 교육은 의미와 맥락을 배제하고 분절적인 언어 지식과 문법을 학습지 풀기 방식으로 기계적 반복을 통한 숙달을 강조함으로써 어법에 맞는 정확한 문장 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S 교대 부속 초등학교의 4학년 귀국 학생반에서는 부족한 국어 수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매일 아침 활동으로 국어 교과서에서 추출한 주요 어휘를 중심으로 한 받아쓰기, 릴레이 독서하기, 국어 교과서 지문을 소리내서 읽기, 자유 주제로 3분간 발표하기, 필체 교정을

위한 그림자 글씨 쓰기를 요일마다 번갈아 가며 실시함으로써 기초 문식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다.

2. 귀국 학생 대상 국어 수업 사례 분석

본 절에서는 한국어가 부족한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학급 학생들과 똑같은 국어 교과서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사례 분석을 통해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 안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참관한 귀국 학생반의 수업은 4학년 1학기 7단원 <의견과 근거>의 2차시 수업이었다. 이 수업은 전 차시 ‘의견과 근거가 무엇인지 안다’의 후속 차시로 본 차시의 학습 목표는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에 대하여 안다’였다. 연구자는 참관한 수업의 동영상 자료를 전사하고, 초등학교 국어 수업의 보편적인 구조라 할 수 있는 ‘도입→ 학습 목표 확인→기본 활동→심화 활동→정리’를 수업 대화의 각 단계별 분석의 준거 틀로 삼아 교사와 학생간에 이루어지는 수업 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 국어 교과서로 진행되는 귀국 학생반 국어 수업 역시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국어 수업과 마찬가지로 ‘도입→ 학습 목표 확인→기본 활동→심화 활동→정리’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수업이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 대화 분석 작업을 통해 일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과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은 어떠한 차별성을 보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도입: 이해가능한 입력 제공을 통해 배경 지식 구축하기

T: 지난 시간에 의견과 근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지요? 우리 의견도 내보고, 근거도 이야기했었지요?

선생님이 재밌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볼 준비 됐나요?
(줄음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짧은 애니메이션 자료 동기유발 자료로 제시하기-2분)

T: 재미있었어요? 이 영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뭘까요?
 S: (학생들 일제히) 졸음운전을 하지 말자.
 T: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뭐가 되어야 할까?
 S: 사고가 날 수 있어요.
 T: 졸음운전을 하면 안 되는 여러분 주장의 근거는 뭐예요?
 S: 벌금을 내야 해요.
 S: 사고가 나서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는 도입 단계에서 졸음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2분 정도의 매우 짧은 동영상 자료로 수업에 대한 동기유발은 물론 전 차시에서 배운 ‘주장’, ‘근거’와 같은 주요 학습 개념을 본 차시 학습에 필요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배경지식을 구축해 주고 있다. 교사가 수업의 도입부에 애니메이션 동영상 자료와 같은 효과적인 수업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귀국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는 ‘주장’, ‘근거’와 같은 필수 학습 어휘를 ‘이해가능한 수준의 입력 (Krashen, 1992)’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자들이 수업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큰 어려움 없이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학습 목표 확인하기: 학습 목표와 관련된 주요 핵심 개념을 영어 단어 제시를 통해 이해시키기

T: 주변 사람을 설득해 본 경험 있어요? 설득 어려운가? persuasion. 단어가 어려운가? 이제 알아요?
 네. 누가 이야기해 볼까?
 S: 지난 번에 있던 학교에서요. 선생님만 타는 엘리베이터를 아이들도 탈 수 있게 해 달라고 설득했어요.
 T: 어떤 방법으로?
 S: 글쓰기로요.
 T: 와, 멋있다.
 S: 저는 채널을 가지고 동생을 설득해서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T: 윤후는 생활 속에서 설득을 했구나.

여러분이 이미 설득을 많이 해 봤구나.

T: (칠판에 판서된 학습목표 가리키며)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알아보자.

같이 읽어봐요. 의견이 뭐였지요? 아이디어, thinking, 이런 걸 의견이라고 해요.

오늘은 의견이 드러나는 글을 읽어보고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특징이 뭔지 알아? 스타일(style),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오늘 이것 배울 거예요.

위의 자료는 학습 목표 확인하기 단계의 수업 대화 중 일부이다. 교사는 ‘설득’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persuasion’이라는 영어 단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대신하면서 ‘주변 사람을 설득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차시 학습 목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 주었다.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알아보자’와 같은 학습 목표 역시 ‘의견’이라는 수업의 핵심 개념을 ‘idea’, ‘thinking’, ‘style’과 같은 영어 어휘를 간단히 언급해 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대신하고 있다. 목표 어휘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시키는 교수자의 수업 방식은 한국어보다 영어가 친숙한 학습자들로 하여금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요 학습 어휘나 개념을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어휘를 통해 교수하는 전략은 학습 목표 확인하기 단계뿐만 아니라 국어 수업 시간 전반에 걸쳐 자주 사용되었다.

3) 기본 활동 1: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읽기 이해 수준 점검하기

T: 교과서의 글을 선생님하고 릴레이 리딩할 거예요.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읽어볼 거예요.

중요한 건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라이터(writer)의 썬킹(thinking)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해요.

(학생들, 한 문장씩 윤독한다.)

자, 이글의 제목은 뭐였지요?

S: (학생들 소리내어)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

T: 이번엔 모둠별로 한 번 더 한 문장씩 돌아가면서 릴레이 리딩을 하면서 읽어 봅시다.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교사는 꺾간 순서를 하면서 아이들의 소리내어 읽기를 점검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읽기 수준을 파악한다)

위의 수업 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 활동 단계에서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소리 내어 한 문장씩 읽어가는 방식으로 글을 정확하게 읽기 훈련과 개별 학습자의 읽기 이해 수준 점검하기를 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라이터(writer)의 씹킹(thinking)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해요.’와 같은 읽기 전략과 ‘이글의 제목은 뭐였지요?’와 같은 질문을 거의 모든 문장마다 비계로 제공하면서 학습자들의 교과서 지문 내용 파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읽기 교수 방식은 일반 학급에서 교과서 지문을 눈으로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는 읽기 수업 방식과 차별성을 보이는 보호 프로그램의 특성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 활동 2: 어휘의 의미와 사용법 교수하기

T: 그러면 이번엔 읽은 글에서 모르는 단어, 어려운 낱말을 밑줄 그어 보세요.

S: (학생들은 교과서에서 모르는 낱말에 밑줄을 긋는다.)

T: 자, 어려웠던 낱말 있었나요? 이야기해 볼까요?

S: 무분별?

T: 아, 생각없이. without thinking.

S: 순수한?

T: 외국어에 영향받지 않고 영어로 pure라고 하잖아? 섞이지 않은 거.

S: 정겹다?

T: 어... 그건 정이 있고 친숙하고 마주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거야.

S: 정서?

T: 말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 역사, 문화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 그런 걸 정서라고 해요.

(아이들 열심히 교과서 한 모퉁이나 단어장에 어휘와 선생님 설명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메모한다)

위의 수업 대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본 활동 시간에 교사는 일반 국어 수업 시간에 비해 훨씬 더 큰 비중으로 어휘의 의미와 그 사용법을 강조하여 교수하고 있다. 수업의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읽기 지문에서 잘 모르는 단어나 어려운 낱말을 찾아 밑줄 긋게 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에 대해 질문 받기, 어휘의 뜻을 구체적인 사용 맥락 안에서 설명해 주기, 영어로 해당 어휘의 뜻을 알려주기, 단어장에 어휘의 의미를 영어와 한글로 메모하게 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휘의 의미와 그 사용법을 교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어휘 의미와 그 사용법을 비중을 두어 교수하는 전략은 어휘력이 부족하여 텍스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배려하는 전형적인 보호 교수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4) 심화 활동: 비계 지원 전략을 통해 국어의 메타적 지식 강조하기

T: 이 글에서 주로 이야기한 의견은 무엇이었지요?

S: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거요.

T: 몇 개의 패러그래프(paragraph)로 되어 있지요? 패러그래프는 생각의 덩어리, 문단이라고 했지요?

S: 네 개요.

T: 제목하고 비슷하지요? 제목만 잘 읽어봐도 이 글에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볼까? 4문단으로 되어 있지? 자기가 찾은 메인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자.

S: (침묵)

T: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보다. 이 네 개의 문단 가운데 주장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문단이 어딘 거 같아?

S: 첫 번째 문단하고 네 번째 문단이에요.

T: 잘 찾았어요.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주장이 있는 문장 있지? 거기 밑줄 그어 볼까? 마지막 문단은 어디지? 거기에도 밑줄 그어 볼까?

S: (교사의 지시대로 문단의 중심 문장에 밑줄을 긋는다.)

일반적으로 문단의 개념과 구조를 초등학생에게 이해시키는 일은 일반 학급의 국어 시간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위의 수업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 국어 수업 시간에서는 문단의 개념과 구조를 아예 ‘paragraph’, ‘생각의 덩어리’, ‘main idea’와 같은 영어의 핵심 용어를 동원하여 설명해 주면서 간단히 넘어가고, 이어서 학습자의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하기 방식으로 심화된 수준의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교사는 문단의 개념이 ‘생각의 덩어리’임을 설명하고,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찾아볼까? 4문단으로 되어 있지?’와 같이 보다 심화된 수준의 학습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학습자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첫 문단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주장이 있는 문장 있지? 거기 밑줄 그어 볼까?’와 같이 비계를 제공하면서 인지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수준의 개념적 이해를 이끌어내고 있다.

위의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제시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비계를 제공하면서 문단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교수하는 방식은 사실 일반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수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담당 교사는 수업 직후에 이루어진 심층 면담을 통해 아이들이 어휘력이 부족한 대신 큰 틀 안에서 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 주려고 일반 학급에서보다 오히려 더 많이 국어 교육의 지식이 되는 전문 용어와 개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수업 방식이 학습 속도나 내용 이해 차원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수업 사례는 보호 프로그램이 일반 수업에 비해 쉬운 내용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르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눈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계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화된 수준의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정리 활동: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재구성을 통해 탄력적인 수업 운영하기

T: 글쓰기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뭐지? 무분별하게 without thinking 이런 거. 우리나라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로 쓰자. 이거지?

S: 네.

T: 우리 지난 시간에 외국어와 외래어 어떻게 다르다고 했지? 기억나?

S: 게스트(guest), 브랜드(brand) 뭐 이런 거 외국어요.

T: 맞아요.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 온 말인데 우리말처럼 된 거예요. 바나나, 멜론, 버스, 토마토, 커피 우리나라 말에 없는 그런 거를 외국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게스트는 손님으로, 브랜드는 상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에는 우리 정서가 없어요. 우리말이 알기 쉽고 정서에도 맞아요.

S: 네.

T: 왜 우리말을 써야 하나면 ... 어렵고 낯선 외국어보다 우리말이 우리 정서에 맞다는 거야. 게스트, 브랜드 이런 말 안 배운 사람은 모르겠지?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 것은 서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 너희들은 왜 사람들이 외국어를 쓰는 거 같아?

S: 텔레비전에 많이 나와서요.

T: 너희가 자주 보고 자주 쓰는 거 그거 무분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보다 국어 공부 더 많이 하라고 늘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이 영어를 더 잘하면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사람이니까 우리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이 이다음에 다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여러분이 한국어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그냥 떠돌게 될 거예요. 우리 한국어를 잘 말하고, 우리 한국어로 우리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소중한 거예요. 알았지요?

정리 단계에서 교사는 해당 차시의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초등학교 국어 수업의 흐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위의 예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징’을 가르치는 것에서 추가적으로 교과서 지문에 제시된 ‘아름다운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내용과 관련해 귀국 학생에게 부족한 우리말 사랑의 태도, 우리말

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한국어가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는 언어라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양상은 정리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교사의 재량으로 읽기 텍스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관련성 있는 주제를 확장하여 탄력적으로 교육하는 보호 교수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 수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일반 국어 수업의 구성 틀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는 하지만 담당 교사의 재량에 의해 학습자의 수준과 흥미,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관 수업 후에 이루어진 심층 면담에서 담당 교사는 자신의 기준으로 보아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교과서의 활동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교과서에는 없지만 수업과 관련이 있는 흥미로운 동영상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 내거나 교과서 지문과 관련이 된다면 해당 차시의 학습 목표와 다소 거리가 있어도 가치나 문화, 인성 교육 같은 것까지도 과감하게 수업에 편입시켜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6) 발화 속도 조절 및 긍정적 피드백으로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막 수준 낮춰주기

T: 근거,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설득할 수 있지요. 이 글에서 근거를 찾아보세요. 생각할 시간 2분 줄게요. 자기가 찾은 근거를 글에서 찾아볼까요? 꿀벌 팀 태도가 너무 좋아서 사과 스티커 계속 줘야겠어요.

(칠팬에 꿀벌 팀에 사과 스티커 붙여준다)

S: (글을 읽으면서 근거 찾아본다.)

T: 이해가 가나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에 답할 수 있을까? 지금 공부한 거 정리해 보자. 3분 줄테니 정리해 보세요.

(기다려준다.)

T: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표현 어떤 스타일을 썼는지 살펴보세요. 아까 밑줄 친 부분 있지요? 어떻게 끝났지요?

S: ‘-해야 한다’

T: 완전 잘했어요.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지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요? 밑줄 친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S: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T: 와, 잘 찾았어요. 근거를 제시할 때 이렇게 써요.

귀국 학생반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의 또다른 특징으로 발화 속도 및 긍정적 피드백 제공 등을 통해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막 수준을 낮춰주기를 들 수 있다. 교사는 일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에 비해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천천히 발화하고, 질문을 할 때에도 충분히 생각하고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귀국 학생반에서도 일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은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지만 보호 프로그램 차원에서 교사는 학습자를 충분히 배려하여 명확한 발음으로 친절하게 천천히 말하고,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 곧바로 ‘좋아요’, ‘완전 잘했어요’, ‘와우’, ‘맞았어요’, ‘잘 찾았어요’, ‘이해가 가나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과 수시 점검형 발화, 스티커로 보상하기 등을 통해 학습자들의 정의적 여과막(affective filter)의 수준을 낮춰주는 교수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정의적 여과막 수준 낮춰주기 전략은 수업의 어느 특정 단계가 아닌 수업 전반에 걸쳐 두루 확인되는 가장 보편적인 보호 교수법 차원의 교수 전략이라 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의 양상은 일반 국어 수업과 달리 교사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과서의 내용을 과감하게 재구성하거나 학습자의 이해를 수시 점검하면서 이해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등 국어 수업의 조건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여 준다.

V. 결론

이제까지 본고에서는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의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의 성격에 주목하여 서울의 S 교대 부속 초등학교 귀국 학생반 한 학급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귀국 학생들의 학교 적응 및 국어 수업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은 장기간의 해외 생활로 인해 한국의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귀국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을 일반 학생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학급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언어 적응, 생활 적응, 문화 적응, 교과 학습 적응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득한 국제성을 유지·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학급에 입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디딤돌 프로그램 내지 보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는 1년 정도의 교육 기간을 통해 자칫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서 놓치기 쉬운 귀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 일반 학급에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이중언어교육이나 몰입식 영어교육 등 국제성 유지·신장 측면의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는 귀국 학생의 문화 적응, 생활 적응, 언어 적응, 교과 학습 적응을 통한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은 실제적이면서도 유의미한 학문적 맥락 안에서 교과 내용과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내용 중심 보호 교수법 차원에서, 귀국 학생의 적응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상위 주제로 설정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한 범교과 중심의 융복합교육 차원에서, 국제이해교육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귀국학생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문화 적응을 유도하는 상호문화교육 차원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한 일반적인 국어 수업의 보편적 구조인 <도입→학습 목표 확인→기본 활동→심화 활동→정리>를 수업의 분석 틀로 삼아 귀국 학생 대상 국어 수업 대화를 분석한 결과, 도입부에서는 이해가능한 입력 제공을 통한 배경 지식 구축하기, 학습 목표 확인 단계에서는 주요 핵심 개념을 영어를 매개로 하여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기본 활동 단계에서는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 읽기 이해 수준 점검하기와 어휘 의미와 사용법 교수하기, 심화 활동 단계에서는 비계 지원 전략 제공하기, 정리 활동 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등 일반 수업과 다른 차별성을 보였다. 요컨대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국어 수업은 일반 국어 교과서로 정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국어 수업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지만 한국어가 부족한 귀국 학생에 맞게 정해진 국어교육의 조건들을 조정해 나가는 모습과 이해가능한 수준의 입력 제공, 발화 속도 및 수업 진행 속도 조절을 통한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막 수준을 낮춰주는 교수 전략이 확인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국 학생반에서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을 통한 학교 적응 및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국어 교육의 조건들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어 교수 전략들은 귀국 학생들이 제한된 언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유도하고 조속한 학교 적응 및 언어 적응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일반 학급에서 침잠(submersion)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절대 다수의 귀국 학생 대상 교육으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김미경(1999), 「해외 귀국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3), 「해외 귀국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경인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현영(2006), 「귀국 초등학생 한국어 지도를 위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활용 방안」,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준영(2009), 「초등학교 귀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귀국학생 특별학급 지도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효숙(2002), 「初等學校 ‘歸國班’ 兒童의 適應에 對한 文化記述의 事例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경숙·임재훈(2012), 「“난 내 나라가 낫설어요.” 귀국학생의 국내 학교 적응 경험」, 『教育心理研究』 26(3), 한국교육심리학회, 621-649.
- 박주용(2011),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방안」,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23-49.
- 박지희(2012), 「귀국학생을 위한 문식성 신장 프로그램의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인순·최영옥·천성문(2010), 「해외 귀국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동서정신과학지』 13(1), 한국동서정신과학회, 37-52.
- 송영복(2004), 「귀국반 어린이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순실(2003), 「귀국학생 교육의 실태 분석 및 귀국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 학습 설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7), 「귀국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일반학교 통합학급 아동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김지영(2003),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11-232.
- 이준호(200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주제 중심 수업의 구성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34, 이중언어학회, 349-370.

- 윤미라(2006), 「귀국학생의 불안·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경(2002), 「초등 귀국학생의 모국어 교육과 외국어 유지를 위한 노력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이영호(2003), 「이중언어교육으로서의 해외 귀국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학회 발표논문.
- 원진아(2010), 「귀국 초등학생의 교과 학습 지원을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일반학교 통합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주(2011), 「귀국 초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 언어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260-287.
- 장한업(2012), 「프랑스 초등학교의 상호문화교육의 현황과 그 시사점」, 『프랑스어문교육』 40, 한국 프랑스어문교육학회, 107-125.
- 정은홍(2007), 「초등 귀국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주(2014), 「초등 귀국학생의 유형별 수업 사례를 통한 한국어 KSL 교육 과정 적용 양상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제희(2005), 「한국어 수업을 위한 내용 중심 교수 방안」, 『한국어교육』 16(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53-377.
- 조미경(2001), 「귀국 초등학생용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wn (2001). *Teaching by principles—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New York: Longman.
- Echevarria & Graves (2007). *Sheltered content instruction: Teach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with diverse abilities* (3rd Ed.), Boston, MA: Allyn & Bacon.
- Grabe & Stoller (1997). Content-based instruction: Research foundation, In M.A. Snow & M. Brinton (Eds.), *The content-based classroom: Perspectives on integrating language and content*. New York: Longman.
- M. A. Snow (1991). Teaching Language through content,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 Foreign Language* (3rd Ed.), Boston: Newbury House.
- Stephen D. Krashen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Pergamon Press.
- Stephen D. Krashen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 Stephen D. Krashen (1992). *Fundamentals of language education*, Torrance, CA: Laredo Publishing Company.

초록

초등학교 귀국 학생을 위한 학교 적응 및 국어 교육 양상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을 중심으로

원진숙

이 연구는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의 보호 프로그램의 성격에 주목하여, 서울의 S초등학교 귀국 학생반 사례 연구를 통해 귀국 학생을 위한 초기 학교생활 적응 교육 및 국어교육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는 궁극적인 목표를 1년 정도의 교육 기간을 통해 자칫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놓치기 쉬운 귀국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 일반 학급에 입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이중언어교육이나 몰입식 영어교육 등 국제성 유지 신장 측면의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에서는 귀국 학생의 문화 적응, 학교 생활 적응, 언어 적응, 교과 학습 적응을 위해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층위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은 귀국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교육 내용을 상위 주제로 설정하고, 이 주제를 여러 교과와 관련 내용들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언어와 교과 내용을 함께 가르치는 일종의 내용 중심 보호 교수법을 기반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귀국 학생 대상 국어수업 분석 결과, 귀국 학생반의 국어 수업은 일반 국어 교과서로 정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한국어가 부족한 귀국 학생에 맞게 정해진 국어교육의 조건들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해가능한 입력 제공하기, 주요 핵심 개념을 영어 단어 제시를 통해 이해시키기, 소리내어 읽기를 통한 읽기 유창성 훈련 강조

하기, 어휘의 의미와 사용법 강조하기, 국어의 메타적 지식을 강조함으로써 깊이있는 교육 유도하기, 발화 속도 및 수업 진행 속도 조절을 통한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막 수준 낮춰주기,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수업 운영하기 등의 교수 전략이 보호 프로그램으로서의 귀국 학생반 국어 수업의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핵심어 보호 프로그램, 귀국 학생 대상 특별학급, 내용 중심 보호 교수법

ABSTRACT

Classroom Adapt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ing Strategies for Elementary Returnee Students

—With a Focus on Special Classes as a Sheltered Program for
Returnee Students

Won, Jinsoo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in examining the conditions in early-stage classroom adaptation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students returning to Korea after having lived abroad through the case study of Returnee Class at S Elementary School in Seoul, paying attention to the features as a Sheltered Program in the special classes for such students. In the Returnee Class as Sheltered Program the ultimate objective over the education period of a year or so is to help the students with in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Korean language to better understand the learning material and to assist with the classroom adaptation so that they may join a regular class soon, which in terms of the content was distinct from bilingual education or immersion English program targeted at maintaining international qualities, that are expected from the parents. However the Returnee Class as Sheltered Program has demonstrated that it can provide various layers of educational experience through its theme-based integrated curriculum, which was ran for the adaptation of returnee students in such areas as culture, school life, language and subject learning. Theme-based integrated curriculum was run based on Sheltered Content-Based Instruction, in which the core learning content is set as the Big

Idea and these topics are linked to related content in various subjects so that language and subject content are naturally taught together.

Also through the analysis of the Korean language class for returnee students it has come to light that teaching in this class was based on the learning objective in standard Korean language education curriculum using the regular Korean language textbooks, but the condition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ad been adjusted to meet the needs of students whose Korean language skills are insufficient.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Returnee Class as Sheltered Program can be identified as providing comprehensible input, making sense of core concepts by explaining with English words, emphasizing the training of reading fluency through choral reading, emphasizing the meaning and usage of vocabulary, inducing in-depth learning by emphasizing metacognitive knowledge of Korean language, lowering the affective filter level of students by adjusting the speed of speech and teaching, and running class flexibly by restructuring the learning content and curriculum.

KEYWORDS Sheltered Program, Special Classes for Returnee Students, Sheltered Content-Based Instruction